

† 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는 작은 이들에게는 주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약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과 자유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을 널리 전하도록 합시다.

=====

2017년 7월 9일 연중 제14주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5-30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주임신부 이야기

자, 7월입니다. 1년 12달 중 상반기 6개월이 지나고 하반기 6개월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6개월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그런지 일부 하모니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네요. 미국내 여행을 하든 한국에 갔다오든 장소와 상관 없이 우리 자신의 내적 건강 상태를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한주는 관촬했지 하는 생각이 한 달이 되고 이것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또는 여행 중에 바쁘더라도 영혼의 양식, 영혼의 비타민인 미사를 거르지 않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우리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며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 곧 영혼이 건강해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신앙생활에 소홀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총 안에서 활기 차게 보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2017년 7월 첫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주보나눔 봉사(7/2)

장 익 가밀로 형제님, 감사합니다!

성모회 점심제공(7/2)

지난 주일 성모회에서 하모니를 위해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항상 청년회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성모회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방 기도의 시간(7/2)

하모니 회합과 친교 이후 사랑방에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지향은 청년회를 위해 묵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우리들의 일상과 고민등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회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친목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성시간 (7/6 목)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저녁미사 (7:30)와 함께 성시간이 있습니다.

성시간: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ldNum=1764&keyword=%BC%BA%BD%C3%B0%A3&ubun=01&gubun=01>

심 데레사 자매님 저녁식사 초대 (7/8 토)

참석하시는 분들께 금주내 별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일시: 7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주보나눔 봉사(7/9 주일)

류은정 골롬바 자매님, 감사합니다!

사랑방 소식

그동안 주임 신부님의 배려로 청년회가 사용해 왔던 사랑방이 낱이 새롭게 단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신자 분들의 도움과 우리 청년회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날 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몇주전 모임에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사랑방 부엌에 있는 냉장고가 고장으로 인해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냉장고를 기증해주신다는 분들도 있었으나 냉장고 크기와 운반에 따른 여러가지 불가피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하모니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새 냉장고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랑방 사용으로 인상된 기본 전기요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모니 회비에서 총당하여 매월 \$20.00 를 성당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희 마리아 자매님(성모회 회장님) 도서 기증

영적도서 구입에 앞서 허은희 마리아 자매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다수의 종교서적과 문학서적을 하모니를 위해 기증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책을 기증해주신 허마리아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도서들을 분류할 예정이며 사랑방에 비치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영적도서 및 자료 구입 - 링크에 명단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걷기행사 후원금으로 우리 청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되는 교육자료를 마련하려 합니다. 구입된 자료는 성당 사랑방에 비치, 함께 관람/공유하고, 대여도 하는 등 유익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영적 도서, 영상물 등 자료에 대한 의견, 또는 구체적인 도서명/자료명 등을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거나 다음의 링크로 올려주세요.

영적교육자료 희망명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5BOqoTfNLAVhxMs_avAlc7wrs_yYBI8-pLCPichh74/edit?usp=sharing

희망 명단을 참고해 신부님과 상의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필요하다 생각되고 관심있는 자료들을 고민하며 찾을때 보람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유익한 교육 자료를 선택해 배움과 나눔의 공간을 꾸며갈 수 있도록 모든 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북가주 성령대회 (8/12 토)

북가주 6개 성당이 함께하는 성령대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아, 최 주임 신부님의 지도아래 오클랜드 성당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큰 행사에 우리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 봉사할 계획입니다. 말씀, 기쁨, 축복이 가득한 성령대회는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특별히 우리 성당에서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은 일정 중간 중간에 봉사하고, 그 외의 분들은 가능한 시간대에 봉사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거나 안내 등의 봉사를 예상하고 있으니 8/12 토요일날 시간을 살짝 비워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12일(토) 오전 8:30 - 오후 8:30

장소: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주제: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에제 37,5)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참가비: \$25.00(점심/저녁 제공) - 당일, 또는 미리 친교실에서 신청

북가주 성령대회 하모니 감사봉헌

성령대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모니에서 감사의 봉헌을 합니다.

감사 봉헌은 책자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책자는 파견 미사때 제대에 올려져 예물로 봉헌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 후원과 더불어 그간 청년회에 베풀어주시는 배려에 대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봉헌 하겠습니다. 봉헌 책자에는 우리가 선택한 좋은 성경 구절이나 성령쇄신운동 50주년 축하 메시지를 함께 넣을 수 있으니 혹시 좋은 성경구절이 생각나는 분들은 7/8일 토요일까지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책자 봉헌란 견본을 예로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3박4일) - 선착순 30명

최 주임 신부님께서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 약 30명의 교우분들과 함께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일정, 첨부파일 참고)

- 순례기간: 9월 3일 (주일)-9월 6일 (수)

- 비용: \$1,350 /1인; 항공권, 순례비용, 숙식 포함

1531년 최초 성모님 발현지인 멕시코 시티의 과달루페 성지 순례에 신부님과 교우분들과 동행할 수 있는 뜻깊고 좋은 기회입니다.

선착순 30명 신청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속히 선금과 함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성서모임 노트정리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성서모임 중 하나라도 마친 분들중에 노트검사/싸인을 받지 못한 분들은 노트를 정리해 7월 30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쓰기 노트

사순절 성경쓰기 (히브리서, 야고보서간)를 필사하신 분들은 노트와 주임 신부님의 선물을 사무실에서 찾아 가십시오.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8월말/9월초 시작)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시작이 8월말/9월초로 연기되면서 앞으로 한두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것의 기본이되는 말씀을 함께 접하고 나누며 배울 수 있는 감사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계 수련회 일정 (9월 중 2 박 3 일)

하계 수련회 날짜를 9/8(금)-9/10(일), 또는 9/15(금)-9/17(일)로 계획하고 숙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날짜 비워주세요.

새신자 - 환영합니다!

최규민 요한
이상희 (예비 신자)

7월 생일 -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5월에 결혼한 문지영 골롬바 자매님(7/2) Happy belated Birthday!

7/6 홍상미 세레나

7/23 허성운 토마스

7/24 이윤지 소피아 (공교롭게도? 같은 날 탄생하신 우리 주임 신부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3 attachments — Download all attachments View all images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9.3-9.6.2017).jpeg

1280K View Download

성령대회 책자 가정,단체 봉헌 견본 1 .jpeg

1332K View Download

성령대회 책자 가정,단체 봉헌 견본 2.jpeg

1477K View Download